

- 주요 뉴스: 미국 8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소폭 상승하며 예상치 부합 9월 금리인하 확실시
 - ECB, 주요 정책금리 동결. 당분간 추가 금리인하 어렵다는 신호도 발신
 - 중국, 지방정부의 민간기업에 대한 대규모 부채 상환 지원할 방침
 - 국제에너지기구(IEA), 내년에는 공급 과잉 심화 예상. OPEC+의 증산 계획 반영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예상치 부합한 8월 소비자물가지수, 금리인하 기대 등이 영향
 - 주가 상승[+0.9%], 달러화 약세[-0.3%], 금리 하락[-2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연준의 금리인하 전망 강화, 소매업체 강세 등으로 상승
유로 Stoxx600지수는 예상에 부합한 ECB 회의, 미국 증시 영향 등으로 0.6%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최근의 고용 둔화 영향 지속 등으로 하락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3%, 0.2%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9월 금리인하 가능성 확대 등으로 하락
독일은 ECB 금리인하 국면 막바지 평가에 의한 매도 증가 등으로 1bp 상승
- ※ 뉴욕 1M NDF 증가 1387.5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389.7원, 0.15% 하락). 한국 CDS 강보합

		9/11일	9/10일	전일대비			9/11일	9/10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587.5	6,532.0	+0.85%	국채 금리 10y	미국	4.02%	4.05%	-2bp
	유럽	555.33	552.29	+0.55%		독일	2.66%	2.65%	+1bp
	중국	3,875.3	3,812.2	+1.65%		영국	4.61%	4.63%	-3bp
	일본	44,373	43,838	+1.22%	CDS 5y	한국	18bp	18bp	+0bp
	한국	3,344.2	3,314.5	+0.90%		중국	40bp	41bp	-1bp
환율	달러지수	97.53	97.78	-0.25%	위험 지표	EMBI+	-	358	-
	유로화	1.1734	1.1695	+0.33%		VIX	14.71	15.35	-4.17%
	엔화	147.21	147.46	+0.17%		WTI유	62.37	63.67	-2.04%
	위안화	7.1186	7.1210	+0.03%	원자재	구리	459.1	455.0	+0.89%
	원화	1,391.8	1,386.6	-0.37%		금	3,634.1	3,640.8	-0.18%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ì.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8월 소비자물가, 전월비 소폭 상승하며 예상치 부합. 9월 금리인하 확실히

- 8월 헤드라인 소비자물가지수(CPI)의 연간 및 월간 상승률은 2.9%, 0.4%로 전월(각각 2.7%, 0.2%)에 비해 높았으나 모두 예상치에 부합. 근원 CPI의 경우 3.1%, 0.3%를 나타내 전월(각각 3.1%, 0.3%)과 비교하여 보합을 나타냈고, 이 또한 예상치와 같은 수준
- 세부항목 가운데 휘발유의 경우 하락한(-6.6%) 반면, 중고차와 유틸리티 가스 서비스 등은 크게 올라(각각 6.0%, 13.8%) 상승을 주도. 수입 비중이 높은 의류, 신차는 매우 낮아(각각 0.2%, 0.6%) 관세의 인플레이션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 종합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며, 에너지 제외한 서비스 부문의 인플레이션(3.6%)은 계속해서 상승
-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로 평가하고, 고용 둔화를 고려하면 9월 금리인하가 확실히 된다고 분석(Regan Capital). 또한 당분간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Bloomberg Economics). FedWatch는 내년 말까지 6회의 금리인하(9, 10, 12월 및 내년 3, 6, 10월. 각 0.25%p)를 전망
- 최근 전문가들은 경제에서 고용 둔화를 더 심각한 문제로 거론하고 있으며, 이날 발표된 9월 1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26.3만건)도 전주비 2.7만건 늘어나 약 4년 만의 최대 기록. 다만 일부에서는 지금이 계절적 영향에 의한 변동성이 높은 시기라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
- 한편 재무부에 따르면, 8월 재정수지는 3450억달러 적자를 나타내 전년동월비 350억달러 감소. 이는 관세수입의 큰 폭 증가(70억달러→295억달러) 등에 기인. '25 회계연도 8월까지의 누계 적자는 1.97조달러로 전년비 760억달러 증가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인도에 항공기 판매 논의 시작할 예정. 인도와의 무역협상 재개 신호로 해석

- 당국자에 따르면, 관련 인사들이 다음 주 인도를 방문, 40억달러 규모의 자국산 항공기 판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 시장에서는 이를 무역협상 재개의 신호로 평가. 아울러 일부 인사들은 양국의 협상이 재개될 것이며, 10월말까지 합의에 이르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

■ Goldman Sachs의 CEO, 미국 경제는 악화. 2/4분 미국 가계 순자산은 전기비 증가

- Goldman Sachs의 솔로몬 CEO는 고용 부진과 고물가 지속 가능성의 징후가 보인다고 지적. 특히 무역정책이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
- 한편, 2/4분기 가계의 순자산 규모는 176.3조달러로 전기에 비해 7.1조달러 증가. 이는 최근 주가의 가파른 상승 등에 기인. 보유 부동산의 가격 상승도 영향

■ ECB, 주요 정책금리 동결. 당분간 추가 금리인하 어렵다는 신호도 발신

- 9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주요 정책금리(수신금리:2.00%, 리파이낸싱금리: 2.15%, 한계대출금리:2.40%)를 모두 동결. 성명서를 통해 인플레이션이 중기 목표에 근접해 있다면서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 라가르드 총재도 경제와 인플레이션 모두 양호한 상황이며, 관련 위험 역시 균형을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 또한 금리경로를 미리 약속하지 않고 매 회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발언
- 시장에서는 ECB가 경제 및 인플레이션이 양호하다고 평가한 것은 당분간 금리인하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해석. 특히 선물시장에서 내년 중반까지 1회의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은 50%를 하회. 다만 일부에서는 관세 불확실성에 따른 수요 둔화 가능성 등으로 연말에 금리인하가 가능하다고 전망(RSM)

■ 중국, 지방정부의 민간기업에 대한 대규모 부채 상환 지원할 방침

- 관계자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민간기업에 체납한 미지급금(7조위안 상회)을 상환하도록 지원할 예정. 이를 위해 주요 국영은행에 대출을 요청할 것이며, 첫 단계로 `27년까지 1조 위안 정도를 해결할 계획. 이번 조치는 민간기업 자금난 해소 및 경기 하방 압력 완화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국제에너지기구(IEA), 내년에는 공급 과잉 심화 예상. OPEC+의 증산 계획 반영

- 내년 원유시장에서는 기록적인 수준의 공급 과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특히 금년과 내년 수요가 늘어나지만, 이를 큰 폭 상회할 정도의 공급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 국제사회의 러시아 및 이란 제재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지만, 공급 확대가 관련 영향을 억제할 것으로 평가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9/12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9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 및 기대 인플레이션, 독일 8월 소비자물가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달러화 약세론자, 향후 기록적 수준의 달러화 가치 하락 재개를 예상 - Reuters

(US dollar bears think record slide may resume after recent pause)

- 달러화 가치는 연초 기록적 수준의 하락 이후 최근 안정세 유지. 그러나 시장에서는 다음의 이유로 큰 폭의 추가 하락을 예상. 첫째, 기존 달러화 하락을 초래한 미국 예외주의에 대한 재고, 트럼프 무역정책에 따른 경제 성장 불안, 지속적인 쌍둥이(무역과 재정) 적자 우려 등이 상존
- 둘째, 고용 부진에 따른 공격적 금리인하 가능성 증가. 셋째, 글로벌 투자자들의 미국 자산 비중 축소 과정에서의 헤지 포지션 구축. 금리인하로 헤지 비용이 낮아지면서 해당 움직임은 증가할 가능성. 넷째, 여전히 고평가 국면이라는 투자자 인식. 이에 향후 1년 동안 달러화 가치의 5~7% 추가 하락이 예상(Scotiabank)

■ 연준의 통화정책, 인플레이션과 고용 둔화라는 상반된 경제 여건에 직면 - WSJ

(Firm Inflation, Soft Jobs Data Pull Fed in Opposing Directions)

-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비 2.9% 올랐고, 식료품과 주택 및 자동차 등 필수품 가격 상승이 확대. 또한 관세 인상에 의한 기업의 비용전가 현실화 징후도 일부 존재. 이에 연준은 관세의 인플레이션 영향을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
- 한편, 고용이 이전에 비해 줄어들고 있다는 공식 지표가 연이어 발표되고 있으며, 지난 주 주간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의 대폭 증가는 해고의 증가 가능성도 시사. 이에 연준은 물가상승 압력과 고용 둔화가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에 직면. 다만 시장에서는 연준이 고용 부진을 반영하여 금년 연속적인 금리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

■ 유럽 경제, 암울한 상황 속 마침내 회복 신호를 발신 - The Economist

(Europe's economy at last shows signs of a recovery)

- 프랑스 정국 불안, 트럼프 관세 부과, 중국과의 경쟁 등으로 유럽 주요국 성장을 평균은 금년과 내년 각각 0.4%, 1.0%에 그칠 전망(IMF). 하지만, 유로존 8월 제조업 PMI와 독일의 Ifo 지수가 수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긍정적 신호가 존재
- 이처럼 열악한 여건에도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는 징후들은 다음의 이유로 설명이 가능. 첫째, 최근 1년의 낮은 인플레이션과 금리하락. 둘째, 실질 임금 인상과 높은 저축률을 통한 잠재적 소비 여력 강화. 셋째, 정부지출 확대 계획에 따른 투자 심리 개선. 넷째, 기업의 시장 다각화 노력과 기술 중심 기업에 대한 투자 증가

■ **중국, 미국 대신 세계 경제를 주도하기에는 여전히 한계 - Financial Times**

(Xi's new world order won't run the global economy just yet)

- 지난주 상하이협력기구에서 시진핑 주석이 인도 모디 총리 등 주요 신흥국 정상들과 회의를 가져 '새로운 세계 질서' 전망이 제기. 그러나 이는 국방·안보 분야에서 일부 가능성이 있지만, 경제와 무역은 단순 진영 논리로 재편되기는 어려울 전망
- 국가들이 전략적 측면에서는 중국과 협력할 수 있어도 실제 교역에서는 시장 원리가 우선. 트럼프 관세는 혼란을 초래하나 예외 규정을 통해 무역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많은 국가들은 중국의 지경학적 패권 추구를 경계
- 글로벌 경제의 주도권은 여전히 미국이 보유. 중국과 신흥국들의 결제시스템 협력을 무시할 수 없지만 달러화 패권을 위협하기는 어려울 가능성. 미국의 패권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중국이 아닌 트럼프 자신의 자해적 정책

■ **G7의 재정부채 증가 및 미흡한 대책, 글로벌 채권시장 우려가 증폭 - Reuters**

(Rising G7 debt back at centre of bond market storm)

■ **미국 주택경기, 모기지금리 하락에도 높은 주택가격 등으로 회복은 기대난 - WSJ**

(Mortgage Rates Are at an 11-Month Low. Will That Save This Housing Market?)

■ **미국 이민법, 국가 이익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집행보다 개혁이 우선 - 블룸버그**

(Immigration law needs fixing more than enforc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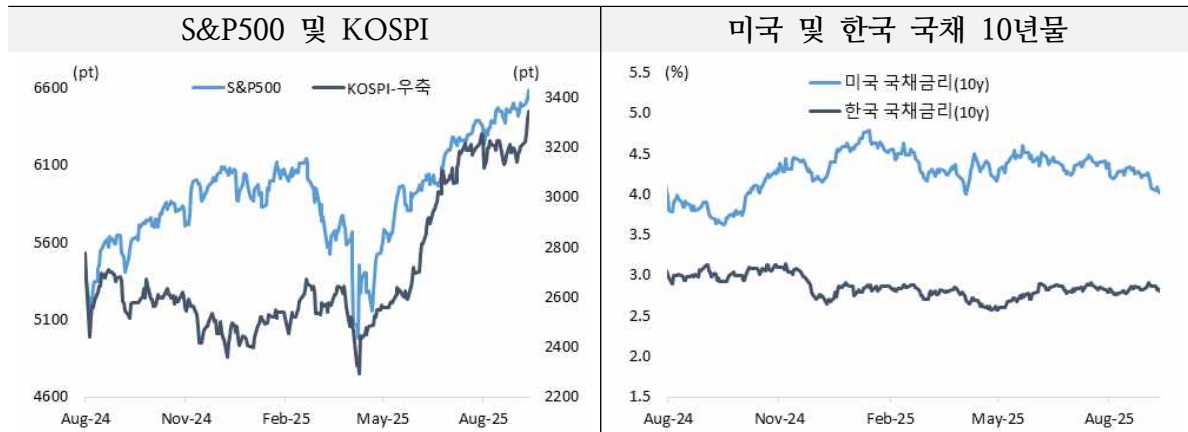
■ **프랑스, 정국 불안에 따른 여파로 다른 유럽국 대비 경기 회복세 더딘 편 - 블룸버그**

(France's Political Gloom Crushes an Otherwise Resilient Economy)

■ **중국의 국경 간 자금 이동, 여타 선진국 대비 미흡하지만 가파르게 증가 - 블룸버그**

(China's \$4.5 Trillion Flows Mark Potential New Era for the Global Economy)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